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2~5, 11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체제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이스라엘의 학살극
7면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정의당·진보당도
찬성표 던지다 12면

정의당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13면

한국, 유럽보다
더 많은 포탄
우크라이나에 제공
16면



‘하마스 성폭행’은 네타냐후와 바이든의 거짓말이다

관련 기사 6면

12월 집중 행동의 날 : 서울/부산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서울 집회·행진 문의: 010-7550-2131

12월 16일(토)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부산 집회·행진 문의: 010-8028-8029

12월 17일(일) 오후 2시 30분
서면 주디스태화 앞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집회 후 도심 행진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주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people.freepalestine@gmail.com)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미국, 유엔의 휴전 촉구를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비호하다

소피 스콰이어가 이스라엘의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투쟁 관련 최신 상황을 2~5면에 걸쳐 다뤘다.

12월 8일 금요일 미국이 “가자 지구에서 즉각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영국은 기권했다. 이것은 미국과 다름없는 악랄함에 약간의 기만과 비겁함을 더한 태도일 뿐이다. 영국·미국 모두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논리를 밀어주고 있다. 이들이 민간인 사망자 수에 개탄하는 것은 위선이고 빈말일 뿐이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강제력을 갖는’ 기구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과, 유엔 회원국들이 선출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안보리에서 안전이 통과되면 찬성표가 아홉 표 이상 나옴과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단 1개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휴전 촉구 결의안은 찬성표가 13표 나왔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표 모하메드 이사 아부샤하브는 그 취지를 밝히면서, 많은 가자 지구 사람들의 “세상 전부가 그들의 눈앞에서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옅서버 국가” 지위인 팔레스타인을 대표해 유엔에 파견된 리야드 만수르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일체의 인도적 지원·접근 경로가 가로막혔다”고 했다.

만수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의 만행을 두둔하고 나섰다

다들 이 공격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굴어야겠습니까? 그 공격이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을 포위하고, 폭격하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박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확한 전쟁 목표가 없다는 말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립니다. 그 목표가 가자 지구 인종 청소임을 모른 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수르는 각국 대표들에 이렇게 말했다. “휴전 촉구 결의를 거부한다면, 전쟁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인종 청소를 끝낼 유일한 수단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만행을 벌이며 바로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우즈는

안보리 연설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우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우즈는 이스라엘에게는 자위권이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을 규탄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은 휴전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졸곧 말해 왔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일부라도 통제하고 있는 지금 전쟁을 멈춘다면 두 국가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말이다. 그런 방안이 의제에 오르기도 했다는 투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하려 이례적으로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다.

구테흐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한계점에 있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매우 크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구테흐스의 촉구와 휴전에 찬성한 다른 나라들의 모든 투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 사건을 보며 유엔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이스라엘에게 타격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자기 경비전을 잠깐이나마 버려야 했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됐더라도 폭격을 멈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엔은 온갖 제국주의자들이 협상과 은폐, 매수, 협박을 일삼는 곳이다.

유엔은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그 침공을 정당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됐다. 그러나 유엔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지 않자 유엔은 버려지고 무시됐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국주의가 여전히 유엔을 좌지우지한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곳은 거리이지 외교의 전당이 아니다.

출처 Sophie Squire, ‘US protects Israel and blocks UN ceasefire call’ (2023. 12. 08) / 번역 김준호

용어설명

유엔 헌장 99조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무총장에게 안전 상정 직권을 부여한다. 이 조항이 발동된 것은 52년 만이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벌거벗겨 취조하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마을에서 악랄하고 모욕적인 잔학 행위를 벌였다. 팔레스타인인 약 100명을 한데 모아 벌거벗기고 거리로 끌고 간 것이다.

12월 6일 SNS와 채팅 앱 ‘텔레그램’에 올라온 이 만행 사진들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돌투성이 계곡 바닥에 줄지어 무릎 꿇린 모습이 담겨 있다.

하마스의 한 간부는 이스라엘군이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어느 사회에 서나 옷을 발가벗기는 일은 수치심을 주

는 행위이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남성이라도 신체를 심하게 노출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이스라엘군은 의식적으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 편집자]

이 사진을 봤다면 누구나 이라크 침공 당시 서방 군대가 저지른 이라크인 고문·학대와 미국이 아부 그라이브 감옥, 바그람 공군 기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구금자에게 저지른 가혹 행위를 떠올릴 것이다.

예루살렘 부시장 아리에 킹은 붙잡힌 팔레스타인인이 “인간 이하의 존재”, “무슬림 나치”라며 이들을 산 채로 파묻으라고 주문했다.

“우리는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박멸”에 관해 킹이 트위터에 쓴 말이다.

킹은 자신이라면 붙잡힌 사람들을 “개미”라고 부르며, 자기라면 D9 장갑 불도저를 이용해 이들을 산 채로 파묻어 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킹은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인간도, 심지어 ‘인간 짐승’도 아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이고 그에 걸맞게 대해야 한다.”

자흐라트는 서안 지구의 나블루스 근처에 거주한다.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에 경악했다고 <소셜리스트 위커>에 전했다.

“점령군은 이제 민간인들을 살던 곳에서 끌어내 벌거벗기고 있어요.

“전 세계가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어요. 이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희는 대량 학살과 인종 청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신 전세계 여러분, 자비심을 가져 주세요. 당신은 저희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공유한 이스라엘측 종군 특파원 이타이 블루멘탈은 이 사진이 “이스라엘군에 자수하는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이스라엘에 무기 퍼주면서 너무 많이 죽이지는 말라고 요구하는 서방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끝없는 학살이 제국주의에 역풍으로 돌아올까?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그럴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오스틴은 지난주 레이건국방포럼(RNDF)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는” 승리할지 몰라도 팔레스타인인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서 “전략적으로는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무게 중심은 민간인에게 있다.

“민간인들을 적의 편으로 넘어가게 하면, 전술적 승리는 전략적 패배로 바뀌게 된다.”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도 지난달 비슷한 경고를 했다.

블링컨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촉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숨을 걱정해서가 전혀 아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주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병커버스터” 등 수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내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도왔는지를 상세히 다뤘다. (관련 기사: 본지 485호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무기 퍼 주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

병커버스터 BLU-109는 870킬로그램짜리 탄두를 탑재한 폭탄으로 폭발 전에 시멘트 벽을 관통하게끔 설계돼 있다.

이 폭탄은 일거에 아파트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독일에 있는 미군의 무기 재고까지 뒤져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대략 폭탄 1만 5000발과 포탄 5만 7000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영국 역시 역겨우리만치 위선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총리 리시 수낙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12월 2일 토요일 영국 국방부는 영국 공군의 ‘새도 R1’ 정찰기들이 가자 상공에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 비무장 무인기가 군사적 구실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질 구출과 관련된 정보만 인질 구출을 담당하는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말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영국이 하마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하면 이를 시온주의 군대에 넘겨주지 않으리라고 누가 믿을까?

그리고 영국 정부가 줄곧 주장하듯이 하마스가 포로들을 지하 터널에 둔다면 공중 감시가 무슨 도움이 될까?

수낙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를 만나 영국의 군사적 개입을 확인시켜 주는 듯한 말을 했다.

영국 정부는 역겹게도 이렇게 주장했다. “가자 지구에서 크게 늘고 있는 민간인 피해를 줄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총리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은 이스라엘 정권의 인종 학살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Sophie Squire, ‘West sends more arms but insists it wants fewer dead’ (2023. 12. 5) / 번역 김준호

이스라엘인 대다수는 더 많은 살상을 바란다

12월 2일 토요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 재개에 항의해 수십 명이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군 기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 공격이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그 분노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겪은 수모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2주 전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총선을 치르면 연립 여당들의 의석이 현재 64석에서 41석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하는 학살에 반대하는 유대계 이스라엘인은 한 줌도 안 된다. 이스라엘인 압도 다수는 식민 정착민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학살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대계 이스라엘인 58퍼센트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퍼붓는 화력이 너무 적다고 여기고, 37퍼센트가 적당하다고 여긴다. 화력을 너무 많이 퍼붓고 있다고 여긴다는 답변은 1.8퍼센트에 불과했다.

출처 Sophie Squire, ‘West sends more arms but insists it wants fewer dead — Most Israelis want a more deadly war’ (2023. 12. 05) / 번역 김준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소식, 시위 일정 등 더 많은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납치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스라엘군 군인 등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더한층 모욕하려고 이 사진을 채팅 앱 ‘텔레그램’과 SNS에 공유했다.

예루살렘 부시장 아리에 킹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잡아 모은 사진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무슬림 나치 수백 명, 이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납치됐던 팔레스타인인 중 한 명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점령군은 우리를 체포해 옷을 벗기고 트럭에 실었어요. 그 후 우리 중 몇 명에게는 집에 가라

고 했고 나머지는 계속 잡아 뒀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들 대부분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8일 금요일에도 가자 지구에 잔혹한 공격을 지속했다.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1만 7500명에 이르렀다.

가자 중심부 데이르 알발라흐에 사는 입티삼 씨는 8일 금요일에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어제 자발리아 난민촌에서는 열 가구가 있던 건물이 통째로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군은 이렇게 폭탄을 쏘아 사람들의 목숨과 기억을 지워 버리고 있습니다.

“두 달이 흘렀어요. 통조림만 먹으며 버텨야 합니다. 밀가루가 거의 동났어요. 대피소는 북새통을 이루고, 구호 물자는 필요에 턱없이 못 미쳐요.

“모두가 피로, 공황,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죽음 · 상실 · 파괴가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라 모두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출처 Sophie Squire, ‘US protects Israel and blocks UN ceasefire call — A foul Israeli crime in Beit Lahia’ (2023. 12. 08) / 번역 김준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칸 유니스 폭격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지난달 7일간의 휴전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1948년 나크바 때의 학살과 인종 청소보다 더 끔찍하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지난 주말에 하루 새 7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10월 7일 공격 이후 가자 지구의 총 사망자 수는 이번주 초에 1만 6000명을 넘어섰다.

가자 지구는 이제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 북부에서 남부까지 모든 곳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폭격을 강화하고 이번 주 월요일(영국 시각 기준 12월 5일) 가자 남부 지역의 칸 유니스 시까지 탱크를 진입시켰다.

또한 가자 지구 중심부를 남부와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가자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칸 유니스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 특히 가자 북부에서 온 사람들의 피난처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칸 유니스마저 폭격의 대상이 됐다.

가자 주민 아부 모하메드 씨는 이미 세 번이나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떠났고, 이제는 칸 유니스에서마저 도망쳐야 한다고 전했다.

“동쪽에서는 이스라엘의 탱크가, 북쪽과 서쪽에서는 군함들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주변에 불길이 치솟았고 집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사방이 온통 붉은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와 충격에 떨었습니다.”

칸 유니스에 살던 네스린 압델모디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남쪽이 더 안전하니 북쪽에서 칸 유니스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칸 유니스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칸 유니스도 이제 안전하지 않고, 라파로 이주한다고 해도 라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죠?”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은 폭격으로 주민들을 쫓아내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조나단 콘리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민간인들에게 전장에서 대피할 것을 요청했고, 가자 지구 내에 인도적 구역을 지정했다.”

그가 말한 “인도적 구역”은 칸 유니스 인근의 6.5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알 마와시다. 알 마와시는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작은 정착촌이다.

구호 단체들은 그곳에 도착할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리를 잡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주거지, 병원 등을 폭격하며 인종 청소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가자 지구 전역의 병원은 아수라장이 됐다.

연료가 바닥났고, 가자 지구 북부에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자 지구 보건부 장관 무니르 알바쉬는 이렇게 말했다. “시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들은 더는 희생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의료 장비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택을 파

괴하고 있다. 이번 주 월요일 가자 시티 동부의 슈자예아 지구에서는 50채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은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주거용 건물의 절반 이상을 파손하거나 파괴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식의 대량 학살을 통해 팔레스타인 저항을 분쇄하려고 한다.

출처 Sophie Squire, 'West sends more arms but insists it wants fewer dead — Bombing the city of Khan Younis shows nowhere is safe' (2023. 12. 5) / 번역 강미령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질로 잡아가다

이스라엘 국가는 서안 지구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주기적으로 납치하고 있다. 어린아이도 납치 대상이었다.

12월 2일 토요일에는 경찰이 움 알 카이르 마을에 사는 17세 소년 마흐무드 하탈린을 집에서 납치했다.

경찰은 하탈린의 눈을 가리고 손을 등 뒤로 묶은 후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 가족은 하탈린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점령지 서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단체 ‘빌리지 그룹’은 하탈린이 이스라엘 경찰에 붙잡혀 끔찍한 밤을 겪었다고 밝혔다.

“하탈린이 밤새 두들겨 맞고 무릎을

밟혀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걸을 수 없었다고 하탈린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전했다.

“하탈린은 납치된 동안 전혀 먹거나 마시지 못했어요.

“하탈린의 어머니는 하탈린이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하탈린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데리러 와 달라고 연락했을 때 하탈린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납치된 순간부터 어딘가에 버려질 때까지 하탈린은 줄곧 눈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하탈린은 몰랐겠지만 아마도 인근 군부대로 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탈린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아요. 하탈린은 공식적으로 체포된 게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괴롭혔던 거죠.”

이 사례는 이스라엘 국가가 서안 지구에서 저지르는 허다한 납치·고문·투옥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국가는 10월 7일 이후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약 3500명을 체포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체포 건수가 이전보다 늘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벌충”하고 있는 것이다. 저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인 포로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교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향후 포로 교환이 추가로 필

요할 경우를 대비해 감옥을 채워 두려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이스라엘군은 서안·가자 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6명을 살해했다. 군인들은 오마르 다라그메, 아라파트 함단, 압델라흐만 마레이, 타에르 아부 아사프, 마제드 자쿨,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수감자를 고문·살해했다.

인권 단체 ‘구금자/석방자를 위한 팔레스타인 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에게 곤봉과 소총으로 매일 구타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Sophie Squire, 'Israeli troops and settlers step up assaults in the West Bank — Zionist troops take more hostages', (2023. 12. 06) / 번역 박이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이스라엘이 '가자의 목소리' 리파아트 알아리르를 살해하다

12월 7일 목요일 이스라엘 국가는 팔레스타인인 저술가·활동가·학자 리파아트 알아리르와 그의 가족 몇 명을 살해했다.

인권 단체 '유럽-지중해 인권 감시기구'의 창립자 라미 압둘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최고의 학자 중 하나이자 훌륭한 인물인 나의 친한 벗 '가자의 목소리'를 노리고 추적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가가 알아리르를 실제로 표적 살해했다 해도 놀랍지 않다. 알아리르는 이스라엘에 위협 인물이었다.

알아리르는 점령의 잔혹한 현실을 폭로하고, 시온주의자들과 서방이 끝도 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간성을 박탈하는 데에 맞서 헌신적으로 싸우며 많은 이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고무했다.

가자 지구 이슬람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알아리르는 가자 지구에서의 삶을 다룬 저작을 남겼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자 지구에서의 생활에 대해 글을 쓰라고 독려했다.

알아리르는 가자 지구 청년 15명이 쓴 글을 모은 모음집 《가자, 글로 받아치다》

의 편집자였다. 알아리르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글쓰기 교실을 운영한 단체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를 설립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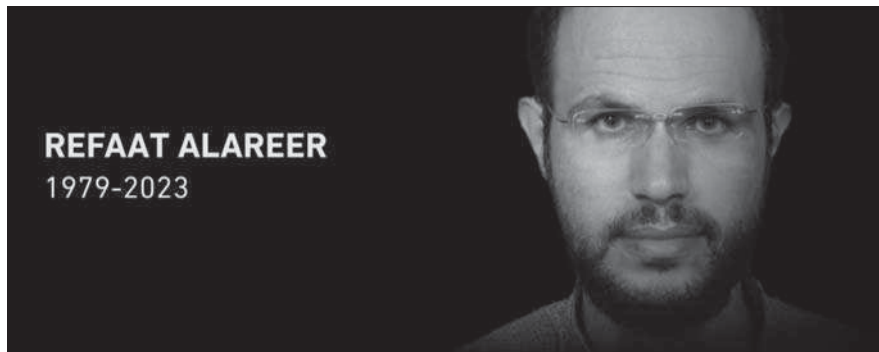
지난 두 달 동안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아리르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그를 접했다. 이 계정을 이용해 알아리르는 시온주의자들과 서방 제국주의 지도자들을 연거푸 규탄했다.

알아리르는 이 계정을 비롯한 온갖 플랫폼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한결같은 지지를 표했다. 그가 트위터에 마지막으로 게시한 글은 이렇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하는 인종 학살에 책임이 있다."

알아리르는 BBC 방송에 출연해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정당하고 도덕적"이라고 규정했다.

알아리르의 발언에 BBC는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여겼고, 다시는 그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10월에 알아리르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팔레스타인 토론회에서 강당 가득 모인 청중에게 화상으로 연설했다. 이 토론회에서 알아리르



REFAAT ALAREER
1979-2023

는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과 유럽, 아랍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인 팔레스타인 연대 거리 시위를 찬양했다.

알아리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알고, 이 쟁점을 둘러싼 행동에 더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더 확대돼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 관해 거짓말합니다.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계산 다시 해 봐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또 그런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정치인들을 벌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식량·물·연료를 끊어 버린 비

인도적 처사에 일조한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와 [예비내각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를 벌해야 합니다."

알아리르는 2022년에 쓴 글 '가자가 묻는다: 과연 언제 끝날까?'에 이렇게 썼다. "끝이 나기를 계속 희망한다. 끝이 날 것이라고 계속 말을 한다. 진심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가자 지구가 계속해서 생존을 걸고 분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련을 끝내기 위해 투쟁하고,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계속 맞서 싸우고 가자 지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출처 Sophie Squire, 'US protects Israel and blocks UN ceasefire call - Israelis murder Refaat Alareer, the 'voice of Gaza' (2023. 12. 08) / 번역 김준호

서안지구에서 공격 수위를 높이는 이스라엘 군대와 정착자들

서안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자흐라트는 서안 지구의 나블루스 근처에 거주한다. 자흐라트는 최근 자신과 가족이 이스라엘군의 끔찍한 공격을 목격했다고 <소셜리스트 워커>에 말했다.

자흐라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군대와 정착자들의 포위·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점령군이 집 앞길에 왔어요. 길가에서는 제 남편과 6살 아들이 농작물을 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죠."

"점령군이 마구잡이로 총을 쏘기 시작했고, 7살 아이와 다른 세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들을 공격하고 아이들에게 총을 쏘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전쟁에 나섰나요? 제 어린 아들과 딸이 걱정돼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요."

"밤에도 정착자들이 공격해, 차를 불



이스라엘 극우파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최근 민간 전투원을 모집해 총기를 지급하고 있다

태우고, 물건을 부수며, 총을 쏩니다. 우리는 공포에 떨고 굶주리고 있어요."

지난주 이스라엘 정착자들은 서안 지구 북부의 카라와트 바니 하산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의 가슴에 총을 쏘아 살해했다.

와지흐 알카트에서는 정착자 15명이 팔레스타인인의 차에 불을 지르고 집 유리창을 돌로 부셨다.

정착민들의 계속되는 폭력 때문에

팔레스타인인 1000명 이상이 피란을 갔다.

헤브론 언덕의 자누타 마을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 마을에 살았던 압둘 하디 알틸은 정착자들이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하고 말했다.

자누타의 집에서 쫓겨난 이사 아흐마드 바그다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또 다른 나크바"라고 말했다. 1948년에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규모로 인종 청소하고 살해한 일에 빚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려 하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들에게 절대 새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착자들이 다시 공격할 거라고도 했다.

정착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협박하며, 땅에서 쫓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어렵잖게 알 수 있다.

지난달에 극우 성향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정착자들에게 소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서안 지구에 "나치가 200만 명 있다"고 말하며 부채질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폭격을 가하는 동안 서안 지구에서는 다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정착자 운동에 자신감을 주고, 이들과 이스라엘군이 힘을 합쳐 팔레스타인인들을 사는 곳에서 쫓아내려는 것이다.

출처 Sophie Squire, 'Israeli troops and settlers step up assaults in the West Bank' (2023. 12. 5) / 번역 박이랑

하마스의 성폭행? — 이스라엘 측의 또 다른 거짓말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 대한 또 다른 거짓말을 열성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그날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강간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이 비방에 가세했다. 12월 5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고통을 가한 다음 살해했다는 보도가 있다. 끔찍한 일이다.”

하마스 전사들이 여성들에게 몸쓸
짓을 저질렀다는 비방은 서방 주류 언
론들을 통해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 국
내 언론들도 별 검증 없이 이를 보도한
다.

하마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실 그런 행위는 하마스 자신의 이슬람주의와도 맞지 않다. 하마스의 바셈 나임 정치국제관계부 대표는 “결혼한 부부 사이 외의 모든 성관계나 성적 활동은 하람(이슬람에서 금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마스가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뢰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는 개전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장 목적자’라고 이스라엘 측이 내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즉, 현재 가자 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정당화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다)이거나, 민간인의 경우 대부분 익명이거나 자신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한다.

11월 19일 CNN은 “이스라엘이 10월 7일 하마스의 성범죄를 조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러나 정작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이스라엘] 경찰청장 두디 카츠는 경찰관들이 여성들이 강간당한 것을 봤다고 신고한 사람들의 진술을 포함해, 10월 7일 공격과 관련된 1000개 이상의 진술과 6만 개 이상의 영상을 수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은 아니며, 강간 피해자의 생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강조는 필자)

대규모 성범죄가 일어났지만 확인된 피해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11월 9일자 기사에서 ‘하마스의 성범죄’를 비난하면서도 “성폭행에 관



한 신체적 증거가 시신들에서 수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10월 7일 팔레스타인인들의 ‘잔혹 행위’를 보여 주려고 편집한 영상을 자신들이 선별한 언론인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영국 <가디언> 칼럼니스트 오언 존스도 그중 한 명이다. 오언 존스는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영국 노동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이스라엘 비판을 이유로 코빈을 ‘유대인 혐오자’로 모는 비방에 동참했던 대표적인 노동당 인사이다.

그러나 그런 오언 존스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강간이 벌어졌다 해도 우리는 영상에서 이를 보지 못했다. … 한 이스라엘 여성이, 속옷이 없고 심하게 탄 여성의 시신을 친척인지 확인하려고 살펴보는 장면이 강간 증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당국은 ‘전문가’와 ‘목격자들’을 내세워 하마스가 성범죄를 사전에 계획했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했다는 주장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한다.

그 전문가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서방 언론들은 코차브 엘카암-레비를 '하마스의 성범죄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민간 위원회 책임자이자 국제 인권 전문가'로 소개한다. 그의 주장은 몇몇 국내 언론 보도에도 인용됐다.

그러나 엘카얌-레비는 하마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독립적 '전문가'가 못 된다.

‘진보적 유대인 관점’을 표방하는 미국의 온라인 언론 몬도와이스는 엘카암-레비가 이스라엘 정부와 밀접한 연계가 있는 인물임을 지적했다. “엘카암-레비는 이스라엘 국제법부 내의 법무장관실 등에서 근무하며 이스라엘 관료들의 팔레스타인인 인권 침해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 엘카암-레비는 이스라엘 총리의 ‘국가안보회의’와 가까운 자문 기구인 테보라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소장이기도 하다.”

야만인?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 관해 거짓말과 왜곡된 주장을 끊임없이 계속 퍼뜨려 왔다.

하마스 전사들이 어린이 40명을
참수했다는 거짓말이 대표적이다. 바
이든도 이 주장을 언론에 떠들었다. 그
러나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제시
되지 않았다.

또한 10월 7일 공격의 이스라엘인 희생자 규모도 계속 바뀌고 있다. 처음에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인 14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숫자를 1200명으로 줄였다. 시신 200구가 팔레스타인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2월 2일 이

스라엘 정부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죽은 사람”이 “1000여 명”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10월 7일 '노바' 음악 축제 참가 중에 이스라엘군 헬리콥터에 피격돼 죽은 민간인이 꽤 있었다고 보도했다.

분명 10월 7일 교전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이 상당수 희생됐고 일부는 포로가 됐다.

그러나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이런 비극을 안타까워하고 변두리에 사는 유대계 주민의安危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 포로를 돌려받는 데도 사실 큰 관심이 없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벌이고 이를 서안 지구로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온갖 거짓말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들은 팔레스타인인을 짐승만도 못한 야만인들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식민 지배자들이 선주민을 후진적이고 끔찍한 야만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다.

선주민 남성은 백인 정착민 여성을 노리는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예컨대 아파트헤이트 체제 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인들은 “검은 위험(Swart gevaar)”으로 불리며, 특히 흑인 남성은 언제 백인 여성을 강간하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존재로 묘사됐다.

똑같은 증상과 비방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던 곳에서 내쫓고 학살하는 인종 청소를 정당화하고,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대의에 흠집을 내려고 말이다.

지난주 미국은 유엔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해 휴전 결의안 통과를 막았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하마스가 견제하는 한 휴전을 할 수 없다며, 외려 하마스의 성범죄가 끔찍한데도 “국제사회가 너무 느리게 대응한다”고 불평했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전쟁 거짓말에
맞장구치면서, 학살 공범 노릇을 톡톡
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체제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폭우처럼 쏟아지는 참상으로 올해의 대미를 맞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공격을 재개했고, 무고한 이들을 계속 학살하고 있다. 역사상 최강의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은 이 살인마 집단을 그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로부터 감싸고 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산 무기는 이번 전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 달 반 동안 이스라엘은 워싱턴이 제공한 유도 폭탄과 재래식 폭탄 2만 2000발을 투하했다. ... 그 기간에 미국은 병커버스터 2000파운드를 포함해 최소 1만 5000발의 폭탄과 5만 발 이상의 155밀리미터 포탄을 보냈다.”

몇 달 전 나는 《새로운 재난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그 책에서 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다중의(여러 겹) 위기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 다중의 위기에는 환경 파괴, 경제 불안정, 미국·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간 각축전, 극우의 전진이 포함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 간 전쟁은 체제의 이런 위기가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전쟁은 중동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미 미국의 지배력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도전받던 상황이었다. 워싱턴의 핵심 동맹 사우디아라비아는 모스크바에 맞서 서방 편 들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했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이 이끄는 개발도상국 주요 경제국의 블록인 브릭스에 참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을 미국과 유럽연합이 확고하게 지지한 것은 서방의 고립 문제를 더욱 키웠다.

위기의 상이한 측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절정기에 세계 공급망 교란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촉발된 바 있다. 이제는 파나마 운하 지역의 가뭄과 수에즈 운하 인근 홍해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예멘 반군의 공격 때문에 세계의 주요 길목 두 곳에서 운송이 느려지면서 공급망이 또다시 교란되고 있다. 과잉 확장된 미국 제국주의는 “중첩된 긴급상



미국은 전쟁 첫 한 달 반 동안 5만 발이 넘는 155mm 포탄을 이스라엘에 보냈다. 가자 지구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포병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하마스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는 심중팔구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전쟁은 훨씬 많은 사람이 국제 연대와 반제국주의에 헌신하는 결과를 남길 것이다

황들”(경제학자 이사벨라 웨버의 표현)에 대응하느라 인간임을 쓰고 있다.

이번 전쟁은 정치적 변화도 낳고 있다. 거대한 규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는 단지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쟁점은 이 세계의 온갖 부조리를 대표하는 사안이 됐다. 그 결과, 왼쪽으로의 커다란 가능성이 열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좌파를 분열시켰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일 기회로 삼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다. 그 탓에 제국주의 열강의 충돌이 이 전쟁의 본질인데도 반대를 대규모로 조직하기가 어려웠다.

기회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은 그런 상황을 변화시켰다. 10월 7일 이래로 전쟁저지연합과 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에 속하는 집회들을 조직했다.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급진화 물결이 일었는데, 새 세대가 반(反)제국주의 정치로 빨리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도륙 행위에 지도적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공모하고 있다. 예컨대,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 총리] 올라프 솔츠의 정부가 그렇다. 이런 상황은 혁명적인 사회주의적 대안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지금은 역사적 순간일 수 있다.

새로운 재난 시대에 가장 우려스러운 특징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실패하면서 생긴 불만을 상당 부분 극우가 흡수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변함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는 내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극우는 (그들 사이에 유대인 혐오가 만연함에도)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사실은 그들이 이슬람을 혐오하고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의 반영이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구호를 내세우며,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떠올려 보라.

가자에서의 살육은 기성 체제의 잔인한 본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하마스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는 심중팔구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전쟁은 훨씬 많은 사람이 국제 연대와 반제국주의에 헌신하는 결과를 남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새롭고 더 강력한 좌파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혁명가들은 지금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번역 김종환

하마스 등의 무장 단체들이 10월 7일 공격에 나선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물이 끓는 냄비 뚜껑을 너무 오래 닫아 두면 넘치는 법입니다.

하마스는 자신이 공격에 나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사원에서 벌인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도발적인 공격, 그리고 그것이 준 모욕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서안 지구에서 정착민과 이스라엘군이 벌인 만행도 언급했습니다.

셋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가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그 ‘정상화’를 팔레스타인 대의의 조종을 울리는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의 첫 국면, 즉 가자 지구를 둘러싼 장벽을 지키고 통제하는 이스라엘군 초소 여러 곳을 습격한 것은 군사적 조직·역량·독창성·규율 면에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인종차별 때문입니다. 저들은 한 줌의 아랍인들이 훌륭한 백인 나라들을 한 수 앞섰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 면에서도 대단했습니다. 저항 세력은 이스라엘군 지휘관들이 어느 건물 어느 방에 있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 세력이 아직 억류하고 있는 포로 중에는 이스라엘군 고위 인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한 명의 학생이자 한때 게릴라 전쟁에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10월 7일 공격의 두 번째 국면, 즉 민간인 살해는 별개의 문제이고 지지받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포로 확보를 막고 하마스 대원을 살해하라는 “한니발 지침”에 따라 그 민간인의 적어도 일부를 살해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당한 일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아공 사람들은 잘 알지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억압하고도 냄비가 끓어 넘치지 않기를 바랄 수는



남아공 게릴라 전사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말하다

로니 카스릴스(사진)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국민회의(ANC) 산하 무장 조직의 창립 멤버의 한 명이고 유대인이다. 카스릴스가 찰리 김버에게 이스라엘의 공격에 관해 말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말한다.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억압자들의 구미에 맞게 신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난 굴욕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의 대응은 그야말로 인종 학살입니다. 몇몇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도를 넘으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정말이지 끔찍하고 한심한 것은 미국이 완전히 냉혹하

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과 블링컨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는 북부에서만큼 가혹하게 굴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주문한 것이 갑자기 무슨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저항의 한복판에 있을 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정확히 내다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기 직전인 1992년 저는 비쇼시(市)에서 “홈랜드” 시스케이를 남아공에 재통합하라고 요구*하는 행진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스물여덟 명이 살해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억압하고도 냄비가 끓어 넘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억압자들의 구미에 맞게 신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항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비로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훗날 그 일을 돌아보면서, 끔찍한 손실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위험 부담이 없는 전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15년 전쯤 가자 지구를 방문했고, 거기서 하마스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4~5년 전 카타르에서 열린 한 회의에 가서도 그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아공에서 어떻게 승리했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세우고, 이를 무장 행동으로 보완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유대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마스 사람들은 그 점을 매우 흥미로워했죠. 저는 그들에게, ANC가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울 때 백인들을 지지자와 당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 적어도 유대인의 일부가 하마스의 저항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하마스에게 득이 될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내세우는 신화, 즉 이스라엘 국가가 모든 유대인을 대표한다는 신화를 박살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투쟁과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투쟁 사이에 공통점이 있나요?

이스라엘은 식민 정착민 국가입니다. 해방 전 남아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것이 특수한 유형의 식민 지배라고 규정했습니다.

고전적인 식민 지배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정착민이 같은 땅에 살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별도의 본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아공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핵심적 차이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구실이 서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윈스턴 처칠, 영국,

보충 설명

“홈랜드” 시스케이 재통합 요구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 남아공 백인 정권은 흑인들을 격리하려고 내부에 괴뢰국 10곳을 만든 후 이를 흑인들의 “홈랜드”이라고 불렀다. 시스케이는 그중 한 곳 이었고 비쇼시(市)는 그 수도였다. 흑인들은 인종적 분리가 없는 남아공을 요구하며 모든 “홈랜드”의 재통합을 요구했다.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다음에는 미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용했죠.

시온주의자들은 매우 교활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시온주의의 창시자 테오도어 헤르츨은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대항하는 유럽의 장벽의 일부여야 하고, 야만주의에 대항하는 문명의 전초기지 구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가스 개발과 수에즈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아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훨씬 굳건히 지지할 것입니다.

남아공에 관해 서방이 우려했던 것은 강력한 공산당과 단결된 노동운동이 존재하고, ANC가 매우 급진화하고 옛 소련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사라지는 것은 소련과의 경쟁에 큰 타격을 줄 터였습니다. 옛 소련이 붕괴하자 그 위험은 사라졌죠. 서방 전체와 남아공 국내 대기업들은 정치 권력을 ANC에게 넘길 태세가 돼 있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차이는, 남아공에는 흑인이 압도 다수였고 매우 강력한 흑인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다르죠.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지배자들은 흑인 노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흑인을 완전히 인종 청소하거나 추



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보다 더 굳건하게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세계적 연대 운동도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12월 9일 영국 런던

사진 출처: 가이 스몰린

방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무의미한 얘기를 늘어놓고 싶진 않습니다. 정의가 유혈과 탄압으로 패배한 사례는 너무 많죠.

하지만 미국이 이전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끔찍한 고통을 낳고 집단 처벌과 도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온갖 만행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자 지구 사람들은 폐허에서 굶주리며 살아가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항이 석 달을 버틴다면 여러 모순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쉽게 붕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내부 이견과, 그때까지 고인 온갖 일들, 포로 가족들의 압박 때문에 붕괴할 겁니다. 또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수낙이 직면한 문제들과 저항의 규모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랍 정권들, 이제껏 팔레스타인인들을 저버렸고 앞으로도 그럴 이 부패한 자들이 끓어오르는 아랍 대중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어느 아랍 국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는 일에 연루되는 부담을 감수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아브라함 협정은 파탄 나게 됐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저항이 오래 버틸수록 이 모든 것이 더 심화될 공산도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벌어질 일도 봐야 합니다. 남아공에서 우리는 투쟁의 네 기둥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대중 저항, 국제적 압박, 무장 투쟁, 지하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세계적 연대 운동의 정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이스라엘의 부

도덕함으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수준으로 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공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해 행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머지 세계를 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간계급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유 TV로, 가난한 사람들은 술집에 모여서 세계를 주시합니다.

이들은 미국 뉴욕 그랜드센트럴역에서 시위를 벌인 유대인들과, 런던에 모인 50만 또는 100만 명을 보고 — 런던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죠 — 놀라고 고무받았습니다. 우리는 잔혹한 서방 정부들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팔레스타인에 관해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아랍의 대중들, 서방에 대한 압박, BDS[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투자철회·제재를 촉구하는 국제 운동] 같은 운동들 — 이것이 희망입니다.

출처 Ronnie Kasrils, 'South African guerrilla fighter Ronnie Kasrils speaks out on Palestine' (2023. 12. 10) / 번역 김준호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라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가자 지구에 가족을 두고 있는 재한 팔레스타인인이 말한다

“연대 운동이 팔레스타인인의 눈과 귀와 목소리입니다”

12월 9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가자 지구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와서 연설했다. 그는 현재 가자 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전하면서도 “올리브 나무와 같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끈질긴 저항 의지를 말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에 연대해 줄 것을 감동적으로 호소했다. 그의 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흔들림 없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목소리가 되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가 목도한 것은 단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굶주리고 봉쇄되며 폭탄을 맞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구조받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이 밤마다 그들이 내뿜는 비명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 두 달만이 아닙니다. 15년간 이어진 불법적 봉쇄에도 그랬고, 75년간 이어진 점령에도 그랬습니다.

100년간 이어진 인종 학살과 정착자 식민주의에도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가자에 있는 나의 가족은 몇 번이나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가자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엔 건물도 위협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유엔 직원들조차 100여 명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가자에는 200만 명 넘는 사람이 물도, 음식도, 연료도, 약도, 의료 기구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생리를 멈추려고 피임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주민 여성의 신체를 공격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정착민 식민주의의 본성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의료 노동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건에서 24시간마다 교대로 일하



12월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12차 집회·행진. 팔레스타인 출신 등 내외국인 수백 명이 참가해 활력 있게 진행됐다

“우리는 올리브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취도 하지 못하고 수술하고, 전기도 물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도 이런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자 지구가 악랄하게 봉쇄당한 지 17년도 더 됐고 숨이 턱 막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세계에서 결정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가자 사람들과 연대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가자 사람들의 목숨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연대와 희망

오늘 이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 여성, 가자와 서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억눌려 왔고, 또 그들은 점령과

학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대의 날이자 희망의 날입니다. 지금 여기 서울과 부산, 자카르타, 워싱턴DC, 파리, 케이프타운,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 세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령당한 모든 사람과 연대할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 착취당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1만 6000명이 죽었고, 1만 2000명의 아이와 여성이 죽었습니다.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용맹한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생존자와 투사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 속하고, 그 땅 위에서 삶을 일구어갈 가치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심은 올리브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모든 협상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 학살을 겪음에도 삶을 가르치고 생명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혁명적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식민주의자들이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0여 년 전 나크바로 수십만 명이 집에서 쫓겨나 가자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나 이제 가자에서도 나가 판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바논과 요르단, 중동 전역의 난민촌에도 수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증조부모 때 살던 곳에서 쫓겨나 난민촌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난민촌은 절망의 장소, 달리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내몰린 곳입니다.

하지만 난민촌은 또한 의지와 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서안과 가자, 난민촌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오늘 이렇게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시다.

그리고 이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줍시다: 전쟁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마라.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의약품을 거부하는 일은 가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용납하지 마라. 당신들이 국제법과 인권이 있다고 여긴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저지르고 있는 가자에서의 만행을 비난하고 행동을 취하라.

감사합니다.

통역 이예송

이스라엘은 내세울 만한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한때 ‘안전’을 보장했던 피란 지역인 칸 유니스를 포함해 가자 지구 남부를 맹폭해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죽고 다쳤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모욕적인 잔악 행위를 했다. 가자 지구 남부에서 남성 민간인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팬 뒤 발가벗겨 취조했다.

이 치떨리는 일들은 이스라엘의 “정당방위” 전쟁이라는 게 기실 팔레스타인인 말살 전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의 “정당방위”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완전히 비대칭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가자 지구에서 살아남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서 난민 신세가 됐다. 그나마 가자 지구에서도 추방될 위험에 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길은 이집트 국경 쪽으로만 열려 있다. 그러나 이집트의 독재 정권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공간을 내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저항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자 북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 세력의 매복·기습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무장 저항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달 넘게 가자 지구를 유린하고 있지만 무장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우려했다.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무계중심은 민간인에게 있다. 민간인들을 적의 편으로 넘어가게 하면 전술적 승리는 전략적 패배로 바뀌게 된다.”

오스틴이 언급한 “무계중심”은 위대한 군사 사상이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핵심 개념을 가리키는 듯하다. 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학살하는 민간인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매스 미디어가 보도하는 이스라엘군의 이미지는 전능한 군대다. 언론은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다 하마스 터널을 침수시키겠다는 이스라엘군의 발표를 논평 없이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군은 터널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사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공격에 이어 연거푸 굴욕감을 맛봤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저항과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가한 압력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시적 교전 중지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일시적 교전 중지 기간에 이뤄진 이스라엘인 인질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의 맞교환 장면은 시온주의자들에게 또 한 번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굴욕

풀려난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검진한 병원 측은 인질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다. 다만 몸무게가 줄었다고 했다. 주로 밥과 빵을 먹고 화장실에 제때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조차 가자 지구의 250만 팔레스타인인들보다 나은 식사였을 것이다.

심지어 한 인질은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자신에게 한 대우에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 뒤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들의 언론 인터뷰를 철저히 차단했다.

팔레스타인 석방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감옥의 끔찍한 실태를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석방자를 환영하는 시위를 금지하고 최루탄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이 한 달 보름 동안 무자비하게 폭격했어도 여전히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원치 않은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했다.

이스라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어려운 전투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도 내세울 만한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전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팔레스타인의 무장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의기양양한 전쟁 프로파간다를 무수히 쏟아내지만, 차마 하마스가 꺾였다는 말은 하지 못한다.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도 “하마스가 견제할 상황”이라서 휴전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착 상태의 전선 이스라엘군은 무적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마스 대원 중 최소 5000명이 사망했지만 가자 지구에는 아직 3만 명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선은 교착 상태다.

네타냐후는 군사적 난관뿐 아니라 재정적 난관에도 봉착해 있다. 미국이 무기와 탄약을 계속 지원하고 있기는 해도(11월 2일 하원이 145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는 전비 지출 증대에 따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교착

12월 6일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시킨 2023년도 수정 예산안 중에 전쟁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연합 자금이 포함되자, 경제부 장관 니르 바라카트는 이 예산안이 이스라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전선의 교착 상태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고 이스라엘군이 더 많은 학살을 자행하면 그에 대한 항의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되면 아랍의 친서방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학살을 한결같이 지지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다. 그랬다가는 확전이나 내전을 유발해 역내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법 관련 쟁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도 더욱 곤란한 처지가 될 것이다.

바이든은 블링컨을 몇 차례나 중동에 보내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점령하에 가자 지구 내 “안전 보장 지대”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인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제하기를 바라면서 “두 국가”를 인정하

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모두 불확실한 시나리오다.

가자 지구 내 “안전 보장 지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국가의 공언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점령을 항구화하고 가자 주민 전체를 몰살시킬 힘이 없다.

“두 국가” 방안은 미국의 지원하에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절대 불리했을지라도) 오슬로 협정을 폭파시키는 바람에 더욱 작동 불가능하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정당방위권”을 지지하면서도, 상황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 작업의 일환으로 “두 국가” 방안을 끄집어 냈을 뿐이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은 아랍국들도 똑같이 위선적이라는 것이다.

이집트 대통령 엘시시는 1967년 중동 전쟁 이전의 국경선에 근거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비무장 국가 방안을 제안했다. 나토, 유엔 평화유지군, 아랍 군대, 미군 중 하나가 가자 지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아랍 국가들은 엘시시의 제안을 반대했다. 오랫동안 가자 지구를 통치해 온 하마스(또는 또 다른 저항 세력)와 충돌하며 가자 지구 안보를 책임질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린 어페어스》는 “출구가 없다”고 현 상황의 고충을 토로했다. 하마스가 꺾멸되는 ‘그날’이 와도 미국에 남는 것은 “악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미국, 아랍의 친서방 동맹국이 각각 다른 구상을 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의기투합하고 있다.

김인식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재석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제1항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마스 규탄을 사실상 강조함으로써 이 결의안은 현재의 비극이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주문’도 이렇게 시작한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양측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또한 이스라엘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해 무차별 로켓 발사를 계속하고 있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및 외국인 사상자가 늘고 있다.”

가난 아기, 앰블런스에 실린 환자, 도망치는 난민 할 것 없이 팔레스타인인이라면 누구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참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이스라엘 민간인 살상이 더 문제인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이다.

146.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																			
재석: 298 인					재석: 158 인					찬성: 158 인					반대: 0 인				
강득구	강민경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권철승	강기운	강대식	강민국	강준현	고용진	구거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도읍	김미애	김봉태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영선	김영석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운덕	김정재	김종민	김주영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원아	김의겸	김정호	김진표	김철민	김한규	김한경	김홍걸	김희재	남안순	도종환	김원국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민병덕	박대수	박대철	박덕홍	박병석
류호정	맹성규	문경복	문진석	민형배	만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수영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진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현진
박원주	박용진	박주민	박진대	배진교	백해련	변재일	서동용	서상석	서영교	서명석	서병수	서일준	서경숙	성일종	송석준	송연석	안병길	안철수	양경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강훈	신현영	양이원	염태영	오명환	禹福九	우원식	유경준	유동수	유상범	유학동
심상경	안국배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항자	여기구	오기형	윤재인	우상호	위성곤	윤두현	윤상현	윤영식	윤재욱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李達坤	이만희
유기홍	윤관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계갑	윤준병	윤호중	윤우덕	이계호	이동주	이수진	이수원	이명수	이 용	이용우	이용호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상민	이상현	이상만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언영	이장섭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李憲昇	임병헌	임오경	임어자	임호선	장동혁
이재명	이재경	이재문	이탄희	이해석	이형석	이재근	임종성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주해	정경희	정동만	정우택	정운천	정경식	정진석
전해철	전해숙	정성호	정일영	정창래	정춘숙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경식	조경훈	조경태	曹明姬	조수진	조은희	조용진	조해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주철현	전준호	최인호	허영재	한경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익표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계형	최종운	최춘식	최형도	최태영	추경호
홍성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희	의경							한기호	한우경	한병도	허은아	홍문표	홍성준	홍성국	홍영표	

12월 8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

결국 국회는 이스라엘보다 하마스를 규탄하는 데 사실상 초점을 맞춘 초당적 결의를 한 것이다.

뒷받침

결의안에 휴전 촉구가 포함돼 있지만, 하마스 규탄을 앞세우는 휴전 촉구는 하마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하마스가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휴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미국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사실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 왔다. 따라서 국회는 만장일치로 정부의 이스라엘 편들기를 뒷받침해 준 것이다.

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하마스 규탄” 입장만

밝혔을 뿐, 이스라엘 규탄 입장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다.(본지에 실린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를 읽어 보시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하마스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민주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지가 관측했던 대로다.(본지에 실린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을 보시오.)

김승주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정의당과 진보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 의원들(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 진보당도 당의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긴급행동’에 참가하고 있다. 두 당은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물론 정의당은 전쟁 초기에 하마스의 폭력과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 폭력을 거의 대등하게 비판하는 거의

양비론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관련 기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대한 정의당의 양비론’ 본지 477호)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지상전 개시 이후 학살이 극심해짐에 따라 이스라엘 규탄으로 강조점을 옮겨 왔다.

그런 만큼 두 당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규탄하지 않는 결의안에 분명한 반대표를 던졌어야 했다.

세계적으로 초미의 정치 쟁점이 된 이 사안을 두고 한국의 ‘국익’(실제로는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충성을 표현하고 충선을 앞둔 상황에서 하마스 규탄 결의에 동조해야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회주의의 발로일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두 ‘좌파’ 정당이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 선언에 동조한 것은 수치스럽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12월 8일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민주당과 함께 사실상 하마스 규탄을 앞세우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규탄하는 내용이 없다.

정의당이 전쟁 초기인 10월 11일 하마스의 폭력과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 폭력을 대등하게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의 대변인 논평을 내놔던 것과 연관 있을 것이다. 그 논평에서 정의당은 이스라엘 국가의 폭력(강탈과 살인)에 맞선 하마스의 불가피한 무장 저항을 ‘모든 폭력은 나쁘다’라는(평화주의) 이유로 지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상전을 개시하고 학살이 극심해짐에 따라 정의당은 이스라엘 규탄으로 강조점을 옮겨 왔다.

가령 11월 17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발언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침략은 아무런 명분이 없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 ... 글로벌 중추 국가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메이드 인 코리아 군수 물자를 이스라엘로 팔아 치우는 것을 더 이상 방관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의당은 이스라엘 규탄을 회피해 온 민주당보다 나았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하마스 규탄 입장을 거둬 들이지도 않았다. 한국 국가의 위상을 고려하는 소위 ‘책임 있는’ 정당으로 행동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 ‘하마스 규탄’ 결의안에서 주류 양당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화주의의 모순

평화주의는 흔히 유엔 같은 국제기구로 대표되는 ‘국제 사회’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대안으로 여긴다. 정의당의 평화주의로 말하자면, 정의당은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뿐 아니라 2014년, 2021년 등 이스라엘의 대규모 팔레스타인 공격이 벌어질 때 한국 정부·국회가 유엔의 적극적인 평화 선언과 개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엔이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득실에 힘쓰는 기구라는 점과 연관되는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만의 문제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다면서, 팔레스타인인 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하마스의 저항은 지지하지 않는 정의당

가 아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무장시키고 지원해서 자신의 중동 패권을 지킬 경비견으로 삼아 온 미국 제국주의의 핵심적 구실을 봐야 한다.

바로 미국과 서방의 동맹국들이 유엔에서 거부권 같은 결정적 권력을 행사한다. 유엔은 거의 모든 경우에 쓸모없음으로써 미국의 이해관계에 기여해 왔다.

유엔의 결의안은 강대국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미국은 가볍게 무시해 왔다. 가령 2013년 이래 유엔은 이스라엘 국가의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45차례나 채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원하는 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고 미국은 그것을 지원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주름잡는 ‘국제 사회’에 기대를 거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평화주의의 난점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러시아가 침략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 강대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데도 말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해 침묵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학살·탄압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이스라엘 규탄 입장을 내

왔지만, 자신의 주요 과제로 삼지는 않았다.

정의당은 한국 국가·경제의 안정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익’이라는 가치 아래 둘을 조화시키려는 (민주당 다음으로 가장 온건한) 개혁주의 정당이다.

그러나 계급으로 분열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체 국민의 이익’으로서의 ‘국익’은 실체가 없거나, 자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포장하는 말이다.

제국주의 문제를 놓고 못 믿을

그래서 정의당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했지만) 여전히 최강 강대국이고 한미동맹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부차적인 한국 국가의 위상을 올려 주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친미·친서방 일변도 외교로 선불리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미·중 두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고 보는 듯하다.

아마도 이것이 정의당이 미국과 보조 맞추는 주류 양당과 함께 국회의 하마스 규탄 포함 결의안을 통과시킨 원인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

나 전쟁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첨예한 시기에 살고 있다.

한국은 제국주의 질서의 양상을 좌우할 만한 강대국 대열에 끼지는 못한다. 그러나 한국의 계급투쟁이 반제국주의 성격을 띠며 강력히 부상한다면 국제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 소생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한국의 수많은 정치 문제들이 제국주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가령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 용인, 우크라이나 지원, 친이스라엘 행보 등 많은 문제적 행보들이 미·중 갈등 격화와 관련돼 있다.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은 오늘날 좌파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이다. 그러나 정의당의 성적표는 거듭 실망스럽다.

김승주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남명건설 부도로 보증금 폐이게 생긴 김해시 임대아파트 주민들

★ 민주당 보수파의 공세는 개혁 의원 단속 압박이다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12월 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2021년 검찰은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모두 이듬해 일단 풀려났지만, 1심 재판이 두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명주 전 민중당 충북도당위원장(현 진보당 청주시 지역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청주 활동가들이 2020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북한에 보고했고, 이것이 북한에 국가기밀을 전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영길은 그 면담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나왔다.

송영길은 검찰의 질문에 당시 면담이 국가기밀이 언급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에 밤나무 묘목을 보내는 교류 사업을 하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고, 자신은 남북 교류에 관심과 책임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관련 민원을 청취하는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송영길이 면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에 소극적이다” 하고 활동가들에게 말한 게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언론도 그런 내용을 보도한 바 없는데, 송영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만이 알 만한 대통령 의중을 활동가들에게 말한 것이라는 것이다.

송영길은 당시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북 철도 연결 문제에 소극적인 대통령에게 불만이었으므로 특별히 기밀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영길은 청주 활동가들과 선을 그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을 돕는 걸 장려하는 행위나 우리 행위를 북에 보고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

송영길은 체제 수호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북한은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통일 대상이기도 한 이중적 존재다. 전자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야 하고 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다뤄야 한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이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청주 활동가들을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던 까닭이 짐작된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국가보안법에 진정으로 반대한 적이 없다(대체입법을 주장하거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송영길

안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오히려 김대중은 물론이고 노무현도 급진적 사상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했다.

당원 명부

송영길 다음으로 이명주 진보당 청주시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청주 활동가들이 민중당(현 진보당)에서 받은 징계 논의 과정, 청주시 당원 명부, 충북 총선 평가 등을 북한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정보들을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에 보고했다는 증거와, 이 정보 취득 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당원 명부의 경우, 당시 민중당 청주 지역위의 선관위가 웹사이트에 며칠간 스스로 공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보였다.

검찰은 청주 활동가 일부가 2019년 당시 민중당에서 지역위 신설과 총선 출마 문제 등을 놓고 징계를 받게 된 경위와 사유를 물었고, 이 위원장은 자세히 답했다. 이런 문답을 통해 검찰은 청주 활동가들이 진보당에서 배제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라고 재판부에 각인시키려 한 듯하다.

청주 활동가들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

다. 진보 정당 당원 명부를 ‘국가기밀’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

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북한 당국에 보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어째서 간첩 활동인가?

청주 활동가들은 F-35 도입 반대 운동, 북녘 통일 밤나무 묘목 보내기 운동 등 평화 운동을 벌여 왔다. 이를 1인 시위, 서명 운동, 모금 같은 대중적인 방식으로 펼쳤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이 활동가들을 탄압하며 한반도 평화 운동 자체를 북한의 사주에 따른 활동으로 보이게 만들려 한다.

오랜 구속과 재판이 활동가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박응용 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 급하게 시술을 두 번이나 받았을 만큼 건강이 심하게 나빠졌다.

박응용 씨는 검찰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물의 진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항의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박씨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우익 언론들은 기피 신청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자 “재판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 표현을 억압하는 국가 장치이므로, 그 적용과 존재 자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억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안법의 존재와 적용에도 반대해야 한다.

김영익

12월 7일에 발행한 기사를 12일에 전면 개정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서평 | 《서사를 바꿔라 — 하워드 진의 마지막 인터뷰》

아래로부터의 미국사

하워드 진(사진)의 마지막 인터뷰가 담긴 책이 번역돼 나왔다. 《서사를 바꿔라》(산처럼)는 미국 언론인 레이 수아레스가 2007년에 하워드 진을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대담집이다.

2010년 세상을 떠난 하워드 진은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와 실체를 폭로하고 피억압 대중의 투쟁과 저항을 조명해 온 걸출한 역사가이자 저술가였다. 뿐만 아니라 흑인 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등 현실에서 벌어지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투사이기도 했다.

1980년에 처음 출간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하워드 진은 미국 권력자들의 관점을 거부하고, 피억압 대중의 편에서 미국 역사를 다시 썼다.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이 사회를 바꿔 왔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 줬다.

레이 수아레스는 콜럼버스 이야기부터 베트남 전쟁과 그 이후까지 다룬 《미국 민중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워드 진을 인터뷰했다. 둘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미국 국가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

미국 민중사

미국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역사적 진실을 숨하게 감추고 왜곡해 왔다.

예컨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위대한 인물로 포장하고 미국 건국 과정을 '개척'으로 포장한다. 또, 20달러 지폐에 새겨진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을 '위대한 민주주의자'로 칭송한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상륙 전에 아메리카 대륙엔 이미 수백만 명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신대륙 개척/발견'은 백인 식민주의의 개념일 뿐인 것이다.

'신대륙 개척'은 학살로 점철된 유혈 낭자한 범죄였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구의 90퍼센트가



사진 출처: Slobodan Mitrov

절멸되는 인종청소를 당했다. 미국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노예제를 지지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을 살해했던 자다.

하워드 진은 평생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숨겨 풀어내며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학살해 왔는지 폭로한다.

그러면서 차별 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왔음을 설파한다.

침략에 맞서 싸운 원주민들, 반란을 일으키고 북부군에 가담한 노예들, 사용자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들, 차별에 저항한 흑인·여성·성소수자들이 하워드 진이 말하는 영웅이다.

“[주류 역사책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자들이 영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영웅이란 정의와 평등을 위해 권력과 정부에 맞서서 의연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진은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는 위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워드 진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부터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정 작용'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이 사회를 바꿔 왔다고 강조한다.

또한, 하워드 진이 자본주의적 민주

주의에서의 선거와 의회 정치에 대해 한 말은 더 나은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준다.

“운동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입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을 가지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제 다른 투쟁 방식을 훼손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처럼 피억압 대중의 투쟁을 강조한 하워드 진이지만, 그는 대중을 무결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피억압 대중은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기도 한다.

하워드 진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종 차별 등을 부추기며 대중을 분열시키는 한편, “있지도 않은 이해관계의 통합을 내세우기 위해” ‘국익’ 같은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하워드 진은 피억압 대중이 차별과 이간질을 극복하고 함께 단결해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역사적 사례를 들며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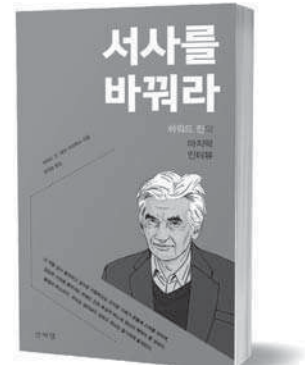
‘선한 전쟁’?

미국은 전쟁을 벌일 때마다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고 '민주주의'와 '해방'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이 파시즘 같은 '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워드 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만 보더라도 미국의 제2차세계대전 참전이 결코 '선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이후로도 '선한 전쟁' 논리를 활용해 베트남과 중동을 침공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해방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이뤄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하워드 진은 미국 제국주의의 수많은 만행을 비판한다. 미국이



서사를 바꿔라 — 하워드 진의 마지막 인터뷰

하워드 진, 레이 수아레스 지음, 김민용 옮김, 산처럼, 256쪽, 16,800원

영국·프랑스 같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처럼 식민 지배를 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미국 권력자들은 “굳이 식민지 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지역의 경제를 미국이 장악할 수 있고 결정적인 시기에 언제든지 미국의 군사력을 파견해서 친미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정부로 세울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제국주의는 지구 도처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미국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여하여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워드 진의 말처럼 미국은 세계 곳곳을 폭격하고 침략해 왔다. 자국 내에서는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에 맞선 대중 운동도 계속 벌어졌다.

하워드 진은 87년 평생 동안 여러 전쟁과 비극을 목격하고 경험했으면서도 “내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며 언제나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와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일 것이다.

하워드 진이 남긴 책, 강연, 연설은 언제나 다른 세계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가 담긴 이 책도 마찬가지다.

이재혁

▶ 16면에서 이어짐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반발을 사면서 한반도에도 악영향을 줬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윤석열이 <로이터>와 인터뷰한 직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가 진전됐다. 러시아와 북한의 외교 접촉이 활발해졌고,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9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났다. 그러면서 북한

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1일 북한은 정찰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해 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부메랑이 돼 한반도에 후과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확전에 일조하며 한반도 긴장도 키운 윤석열 정부

김영익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155밀리미터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해 왔는데, 이 말이 거짓임이 또 밝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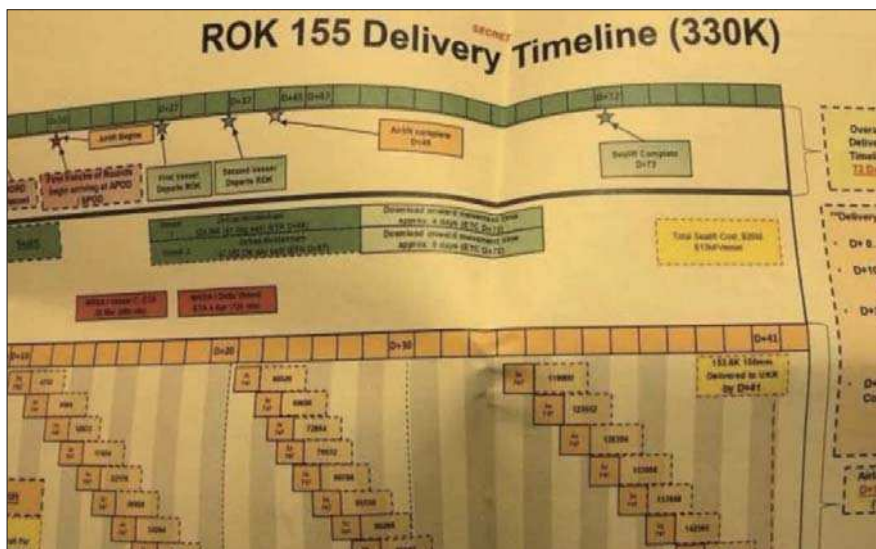
12월 4일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준비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심층 보도를 실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의 정부와 관계자 수십 명을 인터뷰해 쓴 글이다.

이 기사에는 미국이 한국에 포탄을 요청한 배경과 윤석열 정부 측 반응이 나와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2월 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주재하고 미국 국방부·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곧 시작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지원할 방안과 그 공세의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155밀리미터 포탄 공급 문제가 다뤄졌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막강한 화력을 상대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매달 155밀리미터 포탄 9만 발 이상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그런데 미국은 기껏해야 그 수요의 10분의 1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번이 한국에 포탄



올봄에 폭로된 미국 기밀문서들 중 한국산 포탄 33만 발의 이송 계획이 담긴 문건

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냈다. 미국 국방부가 판단하기를, 한국은 포탄 33만 발을 41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포탄] 제공이 간접적인 방식인 한”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155밀리미터

그래서 포탄이 올해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줬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포탄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이전

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올봄에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부(CIA) 도청 문건을 보면, 지난 3월에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외교비서관 이문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 그때 같이 폭로된 다른 미국 기밀문서에는 정확히 “한국산 155밀리미터탄 33만 발”이 한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미국 기밀문서와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포탄 공급을 부인하고 있어, 그동안 한국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보도대로 그 양이 막대한 것만은 분명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탄을 제조하는 풍산의 올해 상반기 군수 부문 매출이 포탄 수출 덕분에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퍼센트 상승했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풍산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에 포탄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생산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후 미국의 155밀리미터 포탄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도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포탄 지원량이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155밀리미터 포탄 수요가 더 늘어난 만큼, 서방이 한국에 더 많은 포탄 공급을 요구할 공산은 훨씬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을 지원해,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도모하려 해왔다. 지난 4월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과 한국 등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올해 공세를 시도했으나, 이는 엄청난 소모전 속에 실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대리전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더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57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유대교 경전(구약성경)을 이용한 시온주의의 거짓말
온라인 토론회 영상을 채널에서 시청하세요! (12월 13일 공개)